

# 사막화 첫째 원인은 '과도한 방목'



올해는 UN이 정한 사막화 방지의 해

제1부 **황사 근원 고비사막을 가다** (하)



**몽** 골에서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유는 적은 강수량(연평균 250mm 이하)과 건조한 기후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목민들 탓이 더 크다. 몽골은 국토의 90%가 초원과 산림이고, 경작지는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몽골인들은 초목을 유랑하며 가축을 치는 유목생활을 주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유목은 필연적으로 주변을 황폐화시키고, 사막화를 촉진한다. 방목된 가축이 초원의 풀뿌리까지 먹어버려 불모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다. UN도 전세계 사막화 진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방목'(headings of overgrazing)을 꼽았을 정도다.

취재진은 바양고비(Bayan Gobi)사막에서 2가구의 유목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1천여마리의 염소와 양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의 일과는 해가 뜨고 동시에 가축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나가 풀어 놓는 것. 아직 사막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아 듩성듬성 풀이 나 있는 곳이 가축들의 '놀이터'가 된다.

## 뿔감 마린 나무 남벌도 문제

방목한 가축들은 이곳에서 '대르스'라고 불리는 흰 갈대와 '태호인 시에그'라는 작은 갈대 나무를 해가 질 때까지 뜯는다. 먹을 것이 없으면 현지인들이 '보르가스'라고 부르는 갈대 나무의 잎을 씹기도 한다.



'바양고비'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왼쪽의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갈색식물은 현지인들이 '보르가스'라고 부르는 나무이며, 키가 작은 흰 갈대는 '대르스'라고 한다. 사막과 초원의 경계에는 이 같은 풀이 자라고 있지만, 유목민이 방목한 가축의 먹이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 100만여명 유목 생활...1가구에 양 1,000여마리 초원에 듩성듬성 난 풀마저 뜯겨 불모의 땅으로 다양한 작물 재배·경작기법 전수 정착유도 시급

모래사막의 능선을 배경으로 한 채 2천여 마리에 달하는 염소와 양이 널리 흩어져 풀을 뜯는 정경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지만, 실은 사막화를 부추기는 현상인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갖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몽골에도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몽골인들은 '칭기즈칸의 후예'다운 방식으로 생활한다. 250만명의 인구 중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 거주하는 90만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유목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몽골의 사막화가 사하라 사막 등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재)지구·인간환경포럼'은 몽골 정부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시기에는 유목민들이 방목하는 가축의 수를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했지만, 1990년대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과잉방목 상태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자 유목민들이 사육하는 가축을 크게 늘렸고, 사막으로 변하는 땅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목민들이 뿔감을 구하기 위해 산림을 남벌하는 것도 사막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난방을 장작으로 한다. 유목민들의 전통 가옥인 '게르'의 한가운데에는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 난로가 있다.

## 산림 전문가들 육성해야

몽골은 거대한 유전을 갖고 있는 산유국(產油國)이지만 정유시설이 없어 유목민들은 아직도 나무를 주 난방원으로 사용한다. 몽골의 국내 석유 소비량의 92%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수입된다.

취재진이 머물렀던 게르도 장작으로 불을 땀는데, 50cm의 장작 2개는 2시간 가량 뜨거운 열기를 내뿜다 꺼졌다. 한국보다 고위도에 있는 나라이니만큼, 5월에도 밤에는 불을 때야만 잠을 잘 수 있다. 밤에는 2시간마다 일어나 장작을 난로에 집어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유목민들은 익숙한 듯 한번도 꺼지지 않고 불을 지켰다.

일본과 미국 등 세계의 사막전문가들은 몽골의 사막화를 막으려면 단순한 나무심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몽골인 산림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몽골에 '방풍림'(防風林·Windbreak Forest)을 조성하는 것보다 유목민들에게 방목 이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얘기다.

또 황폐한 몽골 땅에 다양한 작물의 재배와 경작기법 등을 전수하는 것이 황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이들은 역설한다.

우리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중국과 몽골로 건너가 거액을 들여 나무를 심으며 황사를 막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몽골의 사막화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해결되는 '고르디우스(Gordius) 매듭'이었다.

몽골 바양고비 = 임주형·최현배 기자



30대여성  
**80%**  
미백을 위해  
이것저것 바꿨었다

##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딥화이트닝 아이오페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 기미·잡티, 줄이는 건 다 써 봐도 왜 자꾸 눈에 띈까?

기미·잡티는 불규칙하게 많이 생성된 멜라닌이 피부세포들 겹겹이 쌓여있는 상태. 따라서 화이트닝은 겹겹이 지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을 깨끗이 바꿔주는 딥화이트닝이여야 한다. 30대 여성들 무려 80%가 미백화장품을 이것저것 바꾸는데도, 당장도 미백화장품을 몇 번씩 교체해 본 적이 없다면, 피부 속 깊은 멜라닌까지 노련해 기미·잡티를 집중관리해주는 딥화이트닝을 시작해야 할 때다.



### 깊은 피부 속 멜라닌을 멈추는 멜라리스타- 아이오페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멜라리스타'는 무려 1/100-1기의 딥화이트닝 기술 피부 깊이 스며들어 멜라닌에 그물망과 타지는 이오 오세틴의 집중호르몬시스테인-1, 세포에 나리 화이트닝을 보니 기미·잡티를 억제하는 곳까지 세심하게 피부 속까지 타겟으로 변해 미백작용을 하는 비-티오우로제 등 미백효능성분이 멜라리스타를 통해 삼중이 선입되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호르몬이 가능하다. 기존-시제품 대비 선제 멜라닌 분기 80% 증가, 기미·잡티 부위인 색소침착 개선 8% 증가 등의 뚜렷한 변화가 더 깊은 딥화이트닝의 효과를 증명한다. 여성들의 끝없는 미백 욕망을 위해 캐어낸 아이오페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기미·잡티가 현저하게 깨끗한 기쁨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오페 화이트닝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눈에 보이는 피부과학 -

# IOPE

이오 오세틴 유출제이스에서 아이오페의 모든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ueplace.com](http://www.hueplace.com)

**2006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  
가슴으로 뛰는 모후의 축제  
오늘 당신의 귀한 평범함이  
대중연극 여성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주최: 한국유방건강재단  
주관: 태광방  
일시: 2006년 5월 29일(일) 8:30  
장소: 광주 월드컵 경기장  
참가비용: 5km(간강코스), 10km(회암코스)  
참가비: 1만원  
참가신청: [www.pinkmarathon.com](http://www.pinkmarathon.com)  
내 가슴을 핑크리본

참가비는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어 유방암에  
발에 사용됩니다.  
이벤트: 유방촬영상담, 유방일부표점진, 가수공연,  
아이스사선대회, 부부사랑상, 경품추첨 등 다량  
문의처: (주)태광방 광주지역사업부 062231-1700